

광화문 광장서 '전주독서대전' 알려

전주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 행사 참가... 전주시 주요행사 홍보

올 가을 시민독서 축제를 열기로 한 전주시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주만의 독서·출판문화 알리기에 나섰다.

전주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 23일)'을 기념해 22일과 23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2018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 '2018 전주독서대전' 알리기에 나섰다.

'기록과 기억'을 주제로 오는 9월 14일부터 3일간 전주한벽문화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전주독서대전'은 책과 독서를 주제로 한 종합적인 예술축제로, 출판 및 독서진흥 관련 행사·공연, 기획전시, 학술·토론, 전시·체험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 행사를 통해 시는 전주가 완관본의 고장이자 기록과 출판문화의 본향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2018 책의 해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는 조선시대 전주에서 출간된 완관본의 제작과정을 전시하고, '2018 전주독서대전' 주요 프로그램과 전주한지문화축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주요행사를 소개하는 전주시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

또한, 느린 우체통을 설치해 행사



전주시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월 23일)'을 기념해 22일과 23일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2018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에 참가, '2018 전주독서대전' 알리기에 나섰다.

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1년 후 나에게 보내는 '독서다짐 엽서 쓰기' 행사를 진행하고, '책 읽는 포도존'을 설치하는 등 다채로운 체험부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전주 완관본을 알리고, 각종 행사를 홍보할 좋은 기회"라며

"오는 9월 '2018 전주독서대전'을 통해 책의 도시 전주를 알리고 전주시민들의 독서 열기를 한 단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2018 책의 해 조직위원회는 올 한 해 △나도 북튜버(Book+Youtuber) 캠페인 △위드북(With Book) 캠페인 △북

캠핑 △ 북클럽(독서동아리) 리그 등 함께 읽기 사업을 진행하고, △찾아가는 이동서점 △북트럭 △전국 심야 책방의 날 △책 읽는 가족 한마당 축제 △도서관 독서모임 확대 등 책의 가치 확산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 참여 점포 모집

전주시, 5월 4일까지

전주시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동네슈퍼를 나들가게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살리기로 했다.

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동네슈퍼(나들가게) 활성화를 위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참여 점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시가 골목상권 보호로 대기업 편의점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하고 골목슈퍼의 자생력 강화와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난 2016년 중소기업창업부의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올해까지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11억(국비8억, 시비3억)을 투자되는 사업

으로, 올해 마지막 3차년도 사업대상 점포를 모집한다.

시는 마지막 3차년도 사업을 나들가게 시설 및 운영개선 등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간에 접수된 점포 중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대중매체와 시내버스 등을 통한 광고를 통해 나들가게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 이 사업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들가게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운영관리 △안전관리 △상품관리△점주역량강화 교육 △공동세입전 등을 펼쳐왔으며, 동네슈퍼를 나들가게로 신규 지정해 지원하는데 힘써왔다. /기동취재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주시, 30일까지 접수

전주시가 공공시설과 주택, 상업(산업)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지원의 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주시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총사업비 10억원 내 사업규모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수행 컨소시엄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 등의 건물에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원 중 2종 이상의 융·

복합시설을 설치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해당 건물의 냉난방용과 온수용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 업체는 전주시 공고(제2018-725호)를 참조해 오는 30일까지 전자우편과 우편(등기), 직접 방문해 신청 하면 된다.

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이 사업신청을 접수하면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된 공공기관과 참여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비조금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오는 6월 30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동취재반

완산구, 현장근무자에 마스크 지급

전주시 완산구는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는 노점단속원, 주정차단속원, 도로보수원 등 현장근무자들에게 미세먼지 방지 전용마스크를 지급하여 최일선 근무자의 건강관리와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완산구는 5월 문화의 달을 맞아 전주국제영화제 및 한지문화축제 등으로 야외활동 근무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최일선 근무자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마스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반

'식중독 예방수칙 지켜주세요'

전주시가 따뜻한 날씨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음식물의 보관과 섭취,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봄철 날씨가 풀리면서 살모넬라와 병원성대장균, 캄필로박터,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젠스, 비브리오패혈증 등과 같은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맞는 예방수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철저△식재료 세척 시 수돗물사용하기 △계란은 5°C이하로 보관 △육류, 어패류, 채소류 칼·도마 구분사용 △어패류·육류 익혀먹기 △대형 용기에서 조리된 국 등은 신속제공하고, 식은 경우 잘 섞으면서 재가열해 제공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기동취재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창업기업 안착 돕는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신소재분야 참여기업 26일~5월 10일까지 모집

전주시가 자금 지원을 통해 도내 창업 초기 탄소기업들의 안착을 돕기로 했다.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진흥원)은 전주시와 중소기업창업진흥원이 지원하는 '2018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의 신소재분야(탄소소재, 에너지 등) 기업을 오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기업들이 창업 후 3~7년 사이 직면하는 일명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하고,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투자·기술이전·매출증대·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흥원은 최대 1.5억원을 지원하는 사업화 분야와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성장촉진 분야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두 분야 동시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방법 및 대상은 분야에 따라 상이하니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공고문의 대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접수는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대표자 명의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원 창업도약팀(063-219-35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술원은 또 4차산업혁명에 맞춰 신소재(에너지)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자 이번 사업에 관

심 있는 창업 3~7년 기업을 대상으로 PSST(P:Problem, S: Solution, S:Scale-up, T:Team) 기반의 사업계획서 작성 코칭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현재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주)코프와 (주)메디클론, (주)노텍바이오 3개 기업은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진행된 데모데이를 통해 총 2억원 상당의 투자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업은 (주)솔라시도코리아, (주)코프, (주)메디클론, (주)노텍바이오, (주)센스게임즈, (주)영진스마트 등 9개 기업으로, 3개월 동안 투자 전문 기관의 비즈니스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기도 했다. /기동취재반

시민 도움으로 30대 상습절도범 검거

경찰이 전통시장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를 시민의 도움으로 검거했다.

진안경찰서는 23일 야간전조물침입 절도 혐의로 송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2시50분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전통시장 상점에 들어가 쌀을 훔치는 등 10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그는 훔친 금품

을 생활비로 사용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며 추적하던 중 길가에서 송씨를 발견했다.

경찰을 본 그는 곧장 달아났지만 인근에 있던 한 시민이 던진 나무 막대에 걸려 넘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도움으로 송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주거가 불분명한 점과 재범이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